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3호 [루게 제24466호] 주제 103(2014)년 2월 22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에 쏟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수십년간 사상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난 수십년간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 오시면서 사회주의의 사상을 틀어쥐고 승리하고 사상을 높치면 당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여오시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위대한 심오한 철학, 그 과학성이 빛발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우리 천만 군민이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심과 높은 혁명의 한결을 꽃피어 줄어 오게 한 귀중한 사상적유산으로, 불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년을 뜻깊게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사상사업을 앞세워 백승을 떨치던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지사상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보루이며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바치시였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1960년대초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2)년 9월 19일에 하신 결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라는데 대하여 그리고 당의 통일단결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단결로, 불멸의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우리 당사상사업의 총적방향으로 내세우시고 이를 위한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1960년대 후반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의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키려면 결정적으로 당사상사업부터 혁신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데서 문학예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대한 문제 등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였다.

1970년대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역사적지위를 똑똑히 밝히는것은 현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나왔다.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지위를 밝히기 위

하여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을 분석총화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삼지연에서 낮에 밤을 이어 가시며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주제 60(1971)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지연군 무로에서 일군들과 하신 담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수령님의 존엄과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에서

(1973)년 11월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제 63(1974)년 1월 《당선전일군들은 사상선전의 기술이다》라는 뜻깊은 연설에서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의 전략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신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 당선전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을 책임진 사상선전의 기술습득과 정치사상적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준비할뿐 아니라 실무적지위를 높일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조선로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하신 역사적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인류사상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로작에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데서 나서는 당사상사업의 주된 임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사회주의대대건설을 위한 선진선동사업을 힘있게 벌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할데 대하여,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구고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당의 정치사상적동원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견결히 수호하자》 등의 로작들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71(1982)년 3월 31일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이밖에도 1980년대 우리 당사상사업무렵에 나서는 임무들이 밝혀진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 제시된 사상리론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침들이였다.

1990년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의

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된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총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말아먹게 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사회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주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의 과학이다》 등의 로작들에서 현시

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의 사회적기초로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가기로 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주체사상의 혁명적지위를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세게 전진해나갈수록 할데 대한 문제, 전진군대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튼튼히 하여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의 위용을 더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는 강함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 정치진보적사상이라는 데 대한 문제 등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84(1995)년 6월 19일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로작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사상사업을 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수 있는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도록 귀중한 사상리론적지침들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97(2008)년 9월 5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적지위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강대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라는데 대하여서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데 맞게 사상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는 강함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 정치진보적사상이라는 데 대한 문제 등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84(1995)년 6월 19일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로작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사상사업을 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수 있는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도록 귀중한 사상리론적지침들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97(2008)년 9월 5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적지위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강대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라는데 대하여서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데 맞게 사상사업을 진흥적으로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더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는 강함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고 정치진보적사상이라는 데 대한 문제 등 사상사업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84(1995)년 6월 19일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로작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사상사업을 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킬수 있는 사상사업의 원칙과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갈수 있도록 귀중한 사상리론적지침들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의 민중적인 건설과 과학기술인재양성기인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로동당시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실 구상을 펼치시고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였다.

지난해 11월 몸소 대학을 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교직원, 학생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이어 또다시 현대적인 과학교육설비들을 보내주신 절세위인의 뜨거운 은정은 온 대학을 깔없는 감격으로 뚫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최태복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대학이 나라의 건축인재양성의 원장, 건설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과학연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것을 바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교육사업과 학과과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이어 부총장 김영배, 교원 립기훈, 학생 신태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 없는 선군강령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발전을 위한 수많은 현대적인 과학교육설비들을 보내주셨다고 격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말씀을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무장하고 높은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건설, 건설부문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설계학에서 문명국의 레일이 그려진다는 자각과 건축분야에서 세계적인 메전을 쫓겠다는 야심만만한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시간을 아껴가며 배우고 또 배우며 건축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 21세기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열어 나간다는 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이 21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영성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시고 전당

파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 걸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명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태양영성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힘을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사상선, 선선전전의 원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수령님의 조국, 장군님의 나라를 더욱 빛내이는데 참담하게 이바지해나갈것을 다짐하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연설자는 앞으로 꽃제배와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태양의 꽃들이 더욱 만발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의 주악으로 폐막식은 끝났다.》

연설자는 앞으로 꽃제배와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태양의 꽃들이 더욱 만발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의 주악으로 폐막식은 끝났다.》

제18차 김정일화축전 폐막

민중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14일에 개막되던 제18차 김정일화축전이 폐막되었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천만군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과 뜨거운 충정에 떠받들려 활짝 피어난 수만송의 김정일화와 갖가지 화초들로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은 만일 성황을 이루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판계부문 일군들, 인민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 경축대원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은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건설적소속부대, 인민무력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외부부, 조선인민군 김창집소속부대, 최태일소속부대에 특등상 상장이,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 특별상 상장이 수여되었다.

농업성, 립업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민보안부, 국가보안위원회, 흥중외국, 대성외국 등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 최우수상, 우수상 상장이 수여되었다.

김정일화를 과학기술적으로 피워 지신한 단위의 재배품들이 재배기술상 상장을, 수심명의 인민군인, 근로자, 청소년학생들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이 축전공로상 상장, 참가증을 받았다.

김창도 조선김정일화축전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제18차 김정일화축전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

나라의 국방체육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경기용총련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종업원들의 령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경기용총련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종업원들의 령기모임이 21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보안부 일군들, 공장과 사격관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101(2012)년 2월에 이어 또 다시 올해에 경기용총련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현지지도하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경기용총련공장이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건되고 사격관도 종전의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일신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관리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고 당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말씀은 나라의 국방체육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향상을 위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말씀을 받들고 경기용총련을 대방성산하며 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술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지니고 사회적의의 운명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봉사활동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혈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신념의 대오 끝없이 흐른다. - 삼지연대기념비에서 - 본사기자 적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력사의 그 사연 길이 전하는 무포의 낚시터

우리는 지금 력사의 지점에 서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의 낚시터!

불멸의 력사를 말하여 주는 가백두의 푸른 하늘을 향해 소소리높이 자란 이갈솔은 파도처럼 세인다. 두만강은 소연한 물소리로 밀림의 고요를 흔들며 얼음장밑에서 용용히 흘러간다. 무포에 깃든 불멸의 혁명사상은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와 더불어 영원토록 길이 빛날것이라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비범한 사상리론적재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제사상을 정식화하는것이 더는 미흡수 없는 절박한 력사적과제로 시대와 혁명앞에 나서던 주제 60(1971)년 가을,

백두산지구에서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낮에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고 백두밀림에 달빛호르는 밤이면 전등불을 쬐면서 사색과 집필에 전념하시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거느리시고 하루밤 숙영하시었던 무포숙영지를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력사의 장소에서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다가 너럭바위에 앉으시어 낚시대를 드리우시었다.

아직 이 세상 그 누구도 제기한적이 없고 또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세계적인 사상리론적과제, 력사적의미를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을 무르익혀가시던 그이의 심중에는 과연 어떤 운치가 빛발치고있었는가. 조용한 대기를 울리며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하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준엄한 력사가 강풍과 저 밀림속에 깃들여 있었습니까. 항일의 그 나날 여기에 메아리치던 원추격멸의 총소리가 지금도 그대로 울려오는것 같습니다. 백두산일대에는 수령님의 혁명적업적이 깃들여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기 10대의 어린 나이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신 그때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긴긴 세월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혁명을 영도해 오신분은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호모의 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수령님은 백두의 정기를 타고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현대력사가 알고있는 위인들가운데서 가장 위대한분이십니다. ...

마더마더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절절히 담긴 그이의 말씀은 무포의 정적을 깨치며 물결위에 울려퍼졌다.

두만강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력사적지위를 톡톡히 밝히는것은 현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임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가슴은 해주는 백두밀림처럼 끝없이 설레었고 거대한 력사적의미가 이룩될 시각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것으로 하여 심장은 쿵쿵 울렸다.

그로부터 몇해가 지난 주제 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우선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중점적이며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력사의 그날 강산에 차넘치던 환희와 걱정, 신념의 불꽃이 오늘날도 메아리치며 우리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참가자들속에는 당시의 젊은 당선전일군이었던 삼지연읍에서 살고있는 로당원 김기혁동무도 있었다.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게 된 력사적환경과 강령의 본질적내용,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를 놓고, 거대한 신비의 힘이 온몸을 끌어당기던 력사의 그 순간은 로당원의 심장속에 오늘날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인 로당원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 항일의 혈전사가 빛나게 아로새겨진 성스러운 전구에서 무르익히신 이 강령은 후날 2월의 선언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선포! 정령 이정은 승중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사상리론의 천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 놓으실수 있는 가장 승중한 사색의 결정체였으며 조선혁명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파카히 뚫고 승승장구하게 한 승리의 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과학적으로 정식화됨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속완성하기 위한 강령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40년!

이 땅우에는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굽이쳤던가.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과 현시대의 발전추이를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위대한 선군사상을 21세기 자주위업수행의 전략적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입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휘몰아치는 백두산보라강을 걸으시며 시련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힘으로 고무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시었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우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며 사회주의 건설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오늘의 영웅적전진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계속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도 초저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함성이 높이 울려 퍼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빛나는 결실을 맺고있음을 력사의 땅 무포에서 우리는 가슴뿌듯이 절감할수 있었다.

지나온 년대들마다에 여기 량강방에 도 일어나 물라보게 변모되었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삼지연의 길은 김일성주의화강령을 걸이 전하는 삼지연대기념비, 무산지구전투기념비, 솟아오르고 백두산밀림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송시비가 건립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사적기념비들이 일떠섰으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대한 거점으로 훌륭히 꾸러졌다.

손꼽히는 감자산지의 하나로 이름 떨치는 대흥단과 함께 삼지연, 백암이 수백내로 감자농사경쟁을 하고있다.

삼지연의 불나무거러, 분비나무 거러며 천지연, 문화회관, 학생소년관, 백두산지구체육촌, 백두산아래의 마을 신무성과 무봉노동자구, 포대령기술에 새로 일떠선 농장마을들의 새 모습...

당선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기공에서는 또 얼마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는가.

포대령과 허항령을 넘어 무포의 낚시터로 오는 길에서 우리는 포대령의 토지개량전투장들과 립산사투승리기념비가 솟아오르고 백두산밀림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송시비가 건립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사적기념비들이 일떠섰으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혁명전통교양의 위대한 거점으로 훌륭히 꾸러졌다.

는 행군대오를 이룬 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정숙사범대학의 한 일군은 북받치는 심정을 이렇게 터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라고,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태고연한 밀림에는 무릎이 넘도록 흰눈이 쌓여있지만 혁명사적사업에 충실한 강사, 관리원들의 지성이 깃

들어 눈 한점 보이지 않는 무포숙영지의 나무블록조각을 짊 채우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답사자들이 들어서고있다.

그들은 저저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111호 백두산선거 선거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었다. 영광넘치는 항일전구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군복차림을 한 처녀강사들이 부르는 노래 《무포의 낚시터아 길이 전하라》가 땅방히 울렸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담고 백두의 하늘가 저 멀리로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특약기자 전 철 주**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전하는 무포의 낚시터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만나 동포에

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그 모양이 마치 모란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예로부터 명승지의 하나로 일러온 모란봉, 평양과 더불어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모란봉이 로동당시대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되었다.

얼마전 우리는 명절날이나 일요일은 물론 여느날에도 사람들이 즐겨 찾아와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칠새 없는 평양의 절승 모란봉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깃든 위대한 어버이사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싶어 그곳을 찾았다.

우리는 이곳 공원관리소 일군인 장원복동무에게서 백두산절세일군들의 승고한 애국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모란봉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그 하얀을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슴을 크나큰 격정으로 울려준것은 수십년전 이곳을 찾았었던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에 대한 이야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선사람들은 나무와 꽃이 많고 폭포도 있으며 뽕쪽뽕쪽하고 굵고 호미개 생김 들들도 있는 그런 공원을 좋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모란봉공원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평양의 절승 모란봉에 깃든 위대한 어버이사람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란봉공원을 현지지도하신 40돐을 맞으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모란봉공원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모란봉은 우리 나라의 명승지 인것만큼 웅당 동방미가 나는 공원으로 꾸려야 한다. 동방적공원을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다양하게 잘 살려놓는것이라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평양시에 조선맛이 나게 꾸려진 공원이 없다고, 평양시의 일군들이 시인의 공원을 조성하시어 꾸리지 않고 서양식으로 꾸려놓았는데 그런것은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동방미가 나는 공원, 조선맛이 나는 공원!

다시금 음미해볼수록 우리의것을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겨주시며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꾸려놓아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가를 절대로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철저히 인민의 리익에 부응시키신 절세위인의 승고한 인민관에 가슴뜨거워오움을 금할수 없

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모란봉에 여러가지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올밀대에는 복숭아나무를 심어야 한다, 올밀대앞에 복숭아나무를 심는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을 보기 위해서이다, 복숭아나무에 꽃이 몇 개 피게 하려면 지금처럼 가지자를 따주어야 한다고 일러주시고 아가시나무, 단반나무도 심고 모란같은 아름다운 꽃나무도 심고 장미와 국화도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와 함께 정각, 식당, 청량수로 집을 잘 지어놓고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그네터와 널찍기터를 잘 꾸려놓을데 대한 문제, 길을 보기 좋게 잘 닦으며 사방으로 통하도록 벌레 대한 문제, 목지조성을 잘하고 석축을 보기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21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계기로 열리는 당사상일군대회의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경

정에 넘쳐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훈동지, 김형태동지, 박범기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를 축하해주었다. 참가자들이 대회를 통하여 당사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불멸의 사상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모든 사상사업을 대중의 심장에 투쟁의 불, 애국

의 불을 다는 살아숨쉬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철시켜나갈것을 당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참가해나갈것을 대의 열의에 넘쳐있었다.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신천군 발산리당위원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의 심오한 뜻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력사적인 서한에 대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의 심오한 뜻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력사적인 서한에 대한

면서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가는 그의 열렬한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끝은 끝의를 다지며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로동농사원 정 언 화**

정에 올라서면 주체사상탑과 물위에 뜬 모란도의 5월1일경치장, 모란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의 전경이 보이는 곳, 정발 력사유적과 정각들이서 바라보이는 그 일만경치의 장쾌함을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수 없으리다.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안겨주시며 로고를 기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위원의 승고한 뜻이 모란봉의 나무 한그루, 꽃 한포기, 그치마한 들 하나, 조각 하나, 호르는 물에도 그곳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모란봉공원의 여러 명소들을 돌아보았다.

산악미와 계곡미를 뽐내는 여러 명소들을 돌아볼수록 그곳에서 뜻깊은 문헌 불경지와 룩음우거전 여름풍경,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풍경과 하얀 눈으로 단장한 겨울풍경을 한의 거변에 다 보고싶은 충동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데로부터 평양8경에 속하는 올밀대의 불구경, 부벽루의 달구경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그 아름다움 더욱 유명해지게 된것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인민사랑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올밀대에 올라서면 만수대기념비와 천리마등상이 안겨오도 모란대 올라서면 개선문과 개선청년공원유적이 한눈에 보이며 청류

본사기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김정은

전투장을 들썩하게 하는 흥겨운 우리 장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를 안고 국립민족예술단 경제선동대원들이 올해 들어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를 더 힘차게 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조선적인 장단을 깊이 연구하여 흥취있는 음악뿐 아니라 기백이 있는 음악, 전투적인 음악에도 받아들여 민족적인 색깔이 강하게 살아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수많은 대교전투장에서 수백차례 달하는 현장 경제선동을 진행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던 이곳 경제선동대원들은 올해에 더 많은 단위에서 투쟁의 북소리를 울려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경제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전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장 홍창무동무부비로한 경제선동대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여러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격동시킬 수 있게 공연종목을 잘 선정하고 그 형상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자기 단위의 특색도 일군다는 그 어느 단위에 찾아가도 대중의 심금을 울려잡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경제선동대의 모든 성악배우들과 화술배우들의 기량을 지난 시기보다 한층 더 높이는 데 몰입하고 형상지도를 짜고 들었다.

특히 자기 단위의 특색에 맞게 경제선동대원들이 부르는 한곡한곡의 노래마다에서 민족적인 색깔을 날려 흥겨운 우리 장단으로 사람들의 정서적감동을 더해주도록 하였다.

빈틈없는 준비를 한데 기초하여 경제선동대원들은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서서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추켜들고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올해에 들어와 김정숙평양사공장,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평양도시계획연구소 등을 찾은 이곳 경제선동대원들은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적과 혁신창조를 고무추동하는 공연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의 경제선동활동에서 큰 힘을 얻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초소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결심을 다지었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작업반장은 국립민족예술단 경제선동대의 공연을 우리

농장원들 누구나 다 좋아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하면서 우리 농장원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불러주시니 정말 새 힘이 솟는다. 아버지명령에서 우리 농장을 현지도하신 뜻은 날에 찾아와 공연을 해주니 감회도 새롭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올해의 남새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분발해야 하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어진다 하였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소장은 이들의 경제선동은 언제 봐도 힘이 있고 통속적이어서 좋다. 생활의 웃음속에 대중을 당장책관편으로 불러일으키는 랑만적인 공연이다.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놓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연구집단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평양시를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이 짝 들어찬

도시로 더 잘 꾸러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하였다.

평양도시계획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편만단위의 설계가들도 공연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 평양을 더욱 웅장화시킨 도시로 전면시커리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우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겠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독창과 중창, 독주, 제단 등을 통하여 당정책을 대중의 심장에 새겨넣고 그들을 더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이 얼마나 큰 감회력을 가져오는가를 잘 알고있는 경제선동대원들은 매 공연마다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게 흘러넘치도록 형상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흥겨운 우리 장단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국립민족예술단 경제선동대의 공연활동은 앞으로 더욱더 진행된다.

본사기자 백성근

경제선동과 비약의 불바람

◇당의 령도따라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천만 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금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비롯한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에 완공하기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며 문화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전국각지의 대교전투장들에서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려는 천만군민의 투쟁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의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키는 데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경제선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제선동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걸음 앞장서서 하는 매우 위대한 정치사업방법입니다.》

예를, 웅변, 직판, 방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배합하여 생산현장에서 선전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이는 경제선동활동은 대중이 좋아하고 선동의 실효가 매우 높은 우월한 정치사업이다.

경제선동대는 생산현장을 전투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폭발시키는 화신나팔수라고 같다.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어올라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수 있다.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구두선전, 예술선전, 방송선전, 직판선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경제선동을 막연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경제선동활동을 할 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할 일유격대식 선전선동방법의 기본요구는 선전과 선동을 균중속에 들어가 격격과 힘이 없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상감정에 강한 충격과 자극을 주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할 일유격대식 선전선동의 중요한 특성이며 요구이다.

선전과 선동은 마디마디 반드시 대중의 심장을 울릴 수 있게 강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여야 하며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선전과 선동, 출연회수나 채우는 선전과 선동은 아무런 하도 소용이 없다.

경제선동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내용과 생동한 현실자료를 가지고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격동적으로 생기발달하게 하여야 큰 은을 낼 수 있다.

각 단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혁명적전진의 화신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또 읊나?》, 《꼭 다시 오십시오.》... 이것은 직중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이 경제선동을 마치고 현지를 떠날 때마다 든근 하는 말이다.

평범한 이 말속에 이들이 진행하는 경제선동활동에 대한 대중의 반향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직중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는 지난 기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퍼올리고있는 여러 단위에 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을 진행하였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는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교전투장들에서 혁명의 불바람을 높이 울리며 경제선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흔히 사람들은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무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선동은 무대가 따로 없이 진행되었다. 들

황해북도 예술선전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도예예술선전대에서는 당의 의도를 밝히고 선전사업을 능숙하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도예예술선전대원들이 도안의 중요전투장들에서 경제선동을 할 일유격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좋아한다고, 기대의 동음높은 생산현장에서 그 노래들을 들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는 대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더 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결의를 다짐고 가다듬게 된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사리원프라크르부속공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이들의 공연을 보고 더 많은 프라크르부속공을 생산하여 농촌들에 보내줌으로써 농업에 주력방향을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앞으로의 도를 앞장에서 관철할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구룡협동농장의 포전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이곳 예술선전대원들의 힘찬 경제선동활동에 고무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가 고조되고 있다.

그렇듯 도예예술선전대원들은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 공연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생동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대중의 심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회력을 가져오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기쁨새, 흥분새가 나는 공연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이곳 도예예술선전대의 경제선동활동은 도안의 전투현장 곳곳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낳고 있다.

본사기자



들끓는 농장들에 나가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대흥단군기동에 예술선전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공연

생산현장에서 로력혁신자들이 즐겨부르는 노래가 어떤것들인가, 그들이 현재 어떤 목표를 내걸고 어떻게 투쟁하고있는가를 먼저 로데한데 기초하여 대중의 리중심, 과학 황제영동무들은 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게 공연종목들을 선정하는데 많은 힘을 들이였다.

그리고 창작가들로 하여금 기쁨새, 흥분새가 나는 생동한 표현들을 팔라 작품대본을 구수하면서 도 통속적으로 쓰게 하였으며 배우들은 작품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형상을 잘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이렇게 물들어 준비한 공연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전투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진행하니 생산자들과 누구나 이들의 경제선동공연을 보고나면 새 힘이 솟는다고 하였다.

사리원방직공장 편조방직장 직장장 리영순동무는 직장의 긴장, 박춘옥, 박진국동무를 비롯한 로력혁신자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불타는 소원》, 《그이 없인 못살아》, 《인민이 사랑 하는 우리 령도자》를 예술선전대원들이 불러주시니 직장종업원들 누구나

직관선동활발 미술부문의 창작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직관선동은 직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문화청 해방 부와 조진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건설의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찬 로력적투쟁을 벌이고있는 김정숙평양사공장 합숙건설의 근간건설자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의 과학자들, 평천부제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아가 힘있는 직관선동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들을 짜고 들었다.

창작가들과 교원들은 새로 창작된 선전선동의 선전화들과 해당 단위의 로력혁신자들에게 대한 배수집정의 혁신자선물소비를 들끓는 전투현장에 제시하여줌으로써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미술부문의 창작가, 교원들의 직관선동에 고무된 군민건설자들과

직관선동활발 미술부문의 창작가, 교원들

해당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불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넘치도록 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는 더 좋은 생활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게 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는 이들의 신심넘친 모습을 보면서 미술부문의 창작가, 교원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놓는 직관선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 결심을 굳히었다.

본사기자

제29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29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건축, 건축공학, 건축재료, 건설기계, 도시경관, 국토환경, 건설정보기술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중국에서 조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연회

조중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중국문화부가 20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지체중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중국문화부, 외교부, 중공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

《꼭 다시 오십시오》

놓치지 않는 인기종목이었던 성악배우들의 흥취나는 민요는 현장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이렇게 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며 진행하는 이들의 경제선동을 두고 사람들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공연, 다시 보고싶은 공연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도 선전대의 일군들과 배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교전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선전의 한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대본창작으로 부터 형상에 이르는 창조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강그러 버려가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완성된 작품들이기에 경제선동을 이르는 꽃마디에서 사람들의 절찬을 받으며 감회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기다리는 예술선전대원들이 될 수 있었다.

직중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원들의 경제선동은 올해를 위한 변혁의 해, 장엄한 투쟁의 해로 빛 내이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천만 군민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소리가 되어 더욱 높이 울려갈 것이다.

조향 III

중국에서 조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연회

조중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중국문화부가 20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지체중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중국문화부, 외교부, 중공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선전과 선동, 출연회수나 채우는 선전과 선동은 아무런 하도 소용이 없다.

경제선동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내용과 생동한 현실자료를 가지고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격동적으로 생기발달하게 하여야 큰 은을 낼 수 있다.

각 단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혁명적전진의 화신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총련의 대표 단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대석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 대표단, 정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총련일군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주제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길이 빛나고 있다.

제1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 단장은 이곳을 찾은 때마다 만경대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갈 결의를 가다듬곤 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대표단들은 또한 국가선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기초건설공정, 육류야동병원, 국가과학원 중앙발전연구소 등을 참관하였다.

제2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제2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기계공업, 정보기술, 에너지를 비롯한 8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회 및 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서는 3천원LED 투광 및 배광조명체계와 회로유원소의 분리과 응용,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총설계를 위한 수자지형도작성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할 필요한 16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를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축전기간 대학에서 개발한 현대적인 분석기구들, 분할주사성형제품 등을 보여주는 첨단기술

제2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제29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기계공업, 정보기술, 에너지를 비롯한 8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회 및 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전에서는 3천원LED 투광 및 배광조명체계와 회로유원소의 분리과 응용,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총설계를 위한 수자지형도작성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실할 필요한 16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를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축전기간 대학에서 개발한 현대적인 분석기구들, 분할주사성형제품 등을 보여주는 첨단기술

제29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29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건축, 건축공학, 건축재료, 건설기계, 도시경관, 국토환경, 건설정보기술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중국에서 조중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연회

조중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파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함에 즈음하여 중국문화부가 20일 베이징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지체중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또한 중국문화부, 외교부, 중공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선전과 선동, 출연회수나 채우는 선전과 선동은 아무런 하도 소용이 없다.

경제선동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내용과 생동한 현실자료를 가지고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격동적으로 생기발달하게 하여야 큰 은을 낼 수 있다.

각 단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혁명적전진의 화신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선전과 선동, 출연회수나 채우는 선전과 선동은 아무런 하도 소용이 없다.

경제선동을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내용과 생동한 현실자료를 가지고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게 격동적으로 생기발달하게 하여야 큰 은을 낼 수 있다.

각 단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혁명적전진의 화신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의 편지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것은 평범한 영예군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한 녀성이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다름아닌 담배판매기업소 은정원 로동자 홍미숙동무입니다.

홍미숙동무는 여러해동안 국가적필필과 계계는 물론 평범한 날에도 성의껏 준비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자주 저의 집

사랑의 회원입니다

을 찾아오고있습니다. 찾아와서는 병상에서 어렵게 저의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밤에 찾아왔는가고 물으니 말없이 웃으며 손을 든 지함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지함에는 저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귀한 약들과 물자들 그리고 딸의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비칠

명예박사학위 수여

김용진대각부총리, 강준규 국가학위학적수여위원회 서기장, 판계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백두산절세위원들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세라 늘 마음을 쓰는데 그 진정한 정갈 친철우의 정 그대로입니다. 그 진정한 대할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화목한 대가정이 이루고 사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오하게 절감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인민사회의 화신입니다.

릉성구역 룡성 2동 119인민반 최을찬

제 2의 희천정신장으로 들끓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

완강한 공격전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개척자들

좌안가물막이를 완성한 평양시려단 전투원들의 투쟁 위훈

《발파!》
 팡, 팡, 팡...
 최성벽력같은 발파소리가 건설장을 통해 뒤늦게 우안가물막이가 보기에 무너져내렸다. 청천강의 거센 물결이 때를 만난듯 우안연제구간으로 밀려들더니 좌-좌-좌-좌 격랑을 일으키며 용용히 굴어갔다.
 이것은 방대한 량에 달하는 좌안구간의 1선가물막이공사장을 기어이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총돌격전의 장엄한 시작이었다.
 그때로부터 10여일간, 불꽃튀는 건설투쟁속에 날이 저물고 자라날 노릇을 보냈던 그 잊지 못할 낮과 밤에 우리의 미더운 주인공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기적을 창조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순간순간이 치열한 공격전의 연속이었다. 물파의 싸움은 좌안가물막이공사는 사람의 힘이 더 센가, 아니면 자연의 힘이 더 센가를 판가름하는 말 그대로 총돌격전이었다.
 공사장에 2개의 작업전선이 펼쳐졌다. 려단장 백종원동무가 이끄는 기본력량이 가물막이에 총력을 집중하고있을 때 정치부총 최용수동무와 굴착기운전공들은 좌안구간의 물압력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투를 벌였다.
 무한계도 새한 물속에 잠기는 위험한 속에서도 굴착기운전공들은 심하게 패배적인 우안가

물막이구간을 여러차례 왕복하면서 바다를 한치한치 파나갔다. 겁쟁이는 피로로 몸조차 가누기 힘든 때는 얼어있으며 뜻밖에도 기둥이 정지되고 굴착기가 통째로 떠내려갈뻔 한 아슬아슬한 고비들은 또 그 얼마였는가. 하지만 이들은 한몸이 그대로 육안이 되어서라도 좌안가물막이공사를 믿을 수 있게 뒤통수칠 일임으로 3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여 말려진 굴착과제를 기어이 완수하고자했다.
 좌안가물막이는 한층 더 어려웠다. 나머지구간이 점점 좁아질수록 물살은 배로 빨라져 8t짜리 대형부재들도 마치 종이장처럼 떠내려갔다. 수백kg짜리 돌들을 만능재한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늘어선서 신속하차자들이 데는 동시

행태로 쇠그물을 제작하여 돌들을 채워넣고 거기에 바줄까지 매어 잡아당기면서 제정된 바닥구간에 가라앉히는 기발한 방안을 찾아내었다. 시공과장 좋은철동무는 6개의 에투를 일정한 모양으로 묶어서 강바닥에 떨어뜨려서 좌안구간의 1선가물막이를 깔고 청천강의 흐름을 돌려세우는데 성공하였다.
 모두의 가슴속에 승리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차고넘칠 때 뜻밖의 긴급상황이 제기되었다. 좌안가물막이가 완성되어 물살이 몽땅 우안구간으로 쏠리면서 가배수로를 급격히 파들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먼저 발견한 현장지휘부일군이 선감으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뒤따라 려단의 모든 전

투원들이 신들미를 풀 사이도 없이 또다시 보강작업에 떨쳐나섰다. 이들은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편속 걸쳐드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그 어떤 물압력에도 끄떡없게 가배수로를 질적으로 보수정비하였다. 뿐만아니라 좌안구간의 가물막이도 더욱더 든든히 보강하고 1000여㎡에 달하는 진흙다짐작업도 짧은 시간안에 훌륭히 수행하였다.
 완강한 공격전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낀 이곳 개척자들은 좌안구간의 2선가물막이도 성과적으로 해제하고 필승의 신심과 련합에 넘쳐 발전소건설을 련합해서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힘있는 정치사업, 주도세밀한 작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원대한 건설구상을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건설전투장마당에서 대의비, 대혁신을 일으키고 백두산대국의 위업을 단군조선의 기상을 만발에 펼쳐나가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현장지휘부에서는 발전소건설을 위한 투쟁의 정신력을 총괄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준비를 다스리게 일어나고있다.
 일군들은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요소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돌격대원들 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불어주시는 믿음과 온정에 가는 곳마다에서 돌격대원들이 부르는 《발걸음》 또한 건설자들이 희천 발전소 1단계공사에 발취한 정신과 투지로 정을 반영한 가요 《희천에서 만나다》를 비롯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들이 그칠 줄 모르고 돌격대원들의 총천연 기세속에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희천발전소건설의 나날 공사장을 찾으면서 때마다 건설자들의 생활을 그토록 넘겨해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수백리구간에 전개된 각 려단의 건설장을 찾아 돌격대원들과 일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 하며 후방사업개선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에도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각 려단과 대대속, 취사장들을 배정없이 돌아다니며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 지휘관들이 후방사업과 문화정서생활개선문제를 중요시하여 돌보고있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며 다정하게 보살피주는 일군들의 따뜻한 정에서 희천용사들을 그토록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한껏 느끼며 원수님의 령도를 높은 건설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갈 충정으로 가슴깊이 공사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일군들은 시와 가사, 소묘창작기도 적극 조직하고 예술소풍경연, 기공예술포럼활동도 활기있게 벌어지게 하는 한편 공사장마다에 희천발전소 1단계공사에의 전투적기백과 열정, 향만이 더 세차게 나래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하여 평양시려단과 함경남도 려단, 자강도려단을 비롯하여 일군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돌격대원들이 부르는 《발걸음》, 《희천에서 만나다》를 비롯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들이 그칠 줄 모르고 돌격대원들의 총천연 기세속에 울려나오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또한 돌



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착암공들이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착암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며 암반마다 발과 땅을 뒹구는 용용한 모습과 파와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 매일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는 혁신자들이다.
 그와 잇닿는 곳에서는 질풍을 지고 맞물리는 돌격대원들이 기세를 올리며 버려져서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시작!》
 려단장 백종원동무의 힘찬 구령이 내려지자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엄청나게 큰 돌들을 가득 담은 쇠그물들을 마지막 7m구간에 련속 떨어뜨렸다. 그 맞은편에

수십 차례의 긴급회의 회가 진행되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도 모두 이곳 공사장에 달려나와 화와 지혜를 합쳐가며 효과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참모장 안선일동무와 려단의 기능공들이 독특한

방대한 량에 달하는 수력구조물건설공사를 올해안에 기본적으로 해제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일본색이 남다르다.
 공사실적이 높은 대상의 하나인 희천 5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비약의 대를로 힘있게 일어나고있는 이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려단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복구장비이던 한 공지에 빼곡하게 줄지어 늘어선 각종 휘물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수문기동모양에 맞게 제작된 반원형 비슷한 휘물도 있고 평판형태로 만든 휘물도 있었다.
 자그마한 틈이라도 있을세라 하나하나 품을 들여 완성해놓은 정직한 휘물들이 어림잡아 20수백개는 실히 필살성였다. 맞은편에서는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휘물제작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우리는 작업현장에서 려단장 김석철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통장훈을 부를 드높은 기세

향해남도려단의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수시로 변하는 공사조건에 맞게 발전소건설을 중단없이 내밀자면 전투조직과 지휘를 창발시켜 기동성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려단에서는 자체의 특성을 살려 굴착공사를 줄기차게 벌리는 동시에 휘물제작과 철근가공, 골재채취를 예견성있게 속 앞세움으로써 연방이 풀리는 때부터 콘크리트기에서 전전의 최고기세를 들뜨게 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멘 그는 공사추진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동일군들과 함께 건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명백한 사회주의적 성과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온화지도국,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일념으로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는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희천 8호발전소건설장이다.
 지금 평안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착암공들이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착암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며 암반마다 발과 땅을 뒹구는 용용한 모습과 파와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여 매일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는 혁신자들이다.
 그와 잇닿는 곳에서는 질풍을 지고 맞물리는 돌격대원들이 기세를 올리며 버려져서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시작!》
 려단장 백종원동무의 힘찬 구령이 내려지자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엄청나게 큰 돌들을 가득 담은 쇠그물들을 마지막 7m구간에 련속 떨어뜨렸다. 그 맞은편에

수십 차례의 긴급회의 회가 진행되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도 모두 이곳 공사장에 달려나와 화와 지혜를 합쳐가며 효과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참모장 안선일동무와 려단의 기능공들이 독특한

방대한 량에 달하는 수력구조물건설공사를 올해안에 기본적으로 해제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일본색이 남다르다.
 공사실적이 높은 대상의 하나인 희천 5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체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비약의 대를로 힘있게 일어나고있는 이들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앞장에서 더욱 용기백배하여 투쟁해나감으로써 오늘의 승리가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비약의 불바람

희천 8호발전소건설장에서

용융공들이 굵은땀 뺀 원수반 조립을 다그쳤는데 은산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며 골재채취와 운반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현장에서 우리의 만난 려단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려단에서도 올해안에 8호발전소건설을 기본적으로 해제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작업전선을 최대로 넓히면서 립 체제를 벌려나가고있습니다. 특히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서 굴착공사에 회력을 집중하고 언방이 풀리는 때부터 철근의 콘크리트기설치를 올릴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동일군들과 함께 건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명백한 사회주의적 성과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온화지도국,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일념으로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어느덧 짧은 겨울해가 서산으로 기울더니 기다리자라도 한듯 사방에서 어둠이 덮쳐왔다. 절거는 어둠에 도전하듯 한 줄기 불빛이 밤장막을 헤쳐가더니 여기저기서 불꽃불꽃 쇠불꽃이 치솟는다.
 발전기설립굴착공사에 떨쳐나선 희천시대대와 3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의 전투원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승걸로 강추위를 밀어내며 돌격전의 앞장

에서 혁신의 불꽃을 날린다. 《투루, 투루, 투루, 투루...》 기관총의 어부전 연발사격소리 리가 리승호, 정경제동무들이 착암공들처럼 세게 들어잡고 들어붙는 암반을 향해 세찬 공격을 들이친다. 다른쪽에서도 류학성, 김경남동무들이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암반에 발파구멍을 내고있다. 발파공들이 능숙한 솜씨로 구멍마다 짚싸게 장약한다.

잠시후 《팡, 파-팡, 풍풍...》하는 힘찬 발파소리가 온 공사장을 울려퍼뜨린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자강도려단 돌격대원들의 강철한 청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불꽃가나마냥 끓어오르는 희천 8호발전소건설장은 밤을 모른다. 자랑찬 창조와 빛나는 위훈으로 충만되어 낮에도 밤에도 힘차게 약동한다.

이것이 수행하려는 결정적인 대책이 서야 한다. 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정신력에 기계회운반수단들이 안받침된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희천 1호발전소건설에서도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려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마주앉아 첫달전투작전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에 앞서 광차운반반로를 최대로 늘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이들은 전동기, 감속기를 자체로 해결하여 광차운반반로를 본래있던 별릴 작전을 세우고 도와의 령계를 강화하고 밤길도 여러곳을 오가며 설비마련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벌려나갔다.
 각 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헌신성이며 마련되는 즉시 언방을 깨고 로반을 정리하며 배후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가 붙이 번째 나게 다그치고 려단의 수리기에서 광차운반반로가 힘있게 지원하여 인제굴착공사장에 2개의 운반선로가 더 늘어나 가동하게 되



부쩍 늘어난 광차운반능력

합경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며 최신 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해말 함경남도려단이 맡은 희천 1호발전소건설에는 인제공사장을 위한 큰 규모의 가물막이가 단숨에 진행되고 굴착공사전투가 본래있던 배어지던 2개의 광차운반반로가 새로 생겨났다. 겨울철전에 방대한 량의 연제굴착공사를 기어이 끝내고 콘크리트기에서 비약을 일으키려는 려단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열의속에 지역갱생의 산물로 형성된 이 운반계통은 처음부터 온을 냈다.
 그러던 올해 창조였다. 새해의 첫인상부터 신년사를 하시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위해 중요건설대상의 첫자리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넣는 려단 정치부장의 생각은 깊었다.
 방대한 올해공사과제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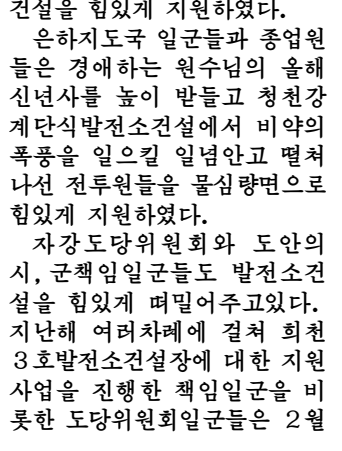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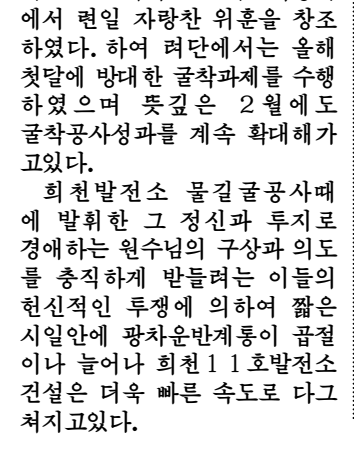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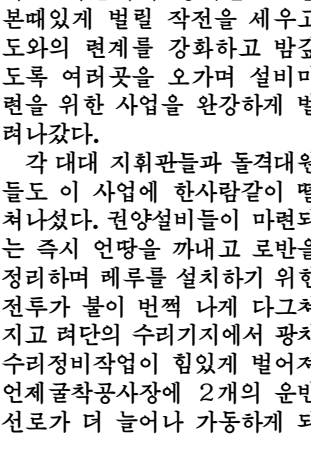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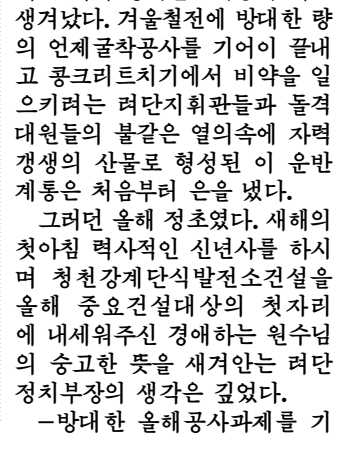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동일군들과 함께 건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명백한 사회주의적 성과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온화지도국,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일념으로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어느덧 짧은 겨울해가 서산으로 기울더니 기다리자라도 한듯 사방에서 어둠이 덮쳐왔다. 절거는 어둠에 도전하듯 한 줄기 불빛이 밤장막을 헤쳐가더니 여기저기서 불꽃불꽃 쇠불꽃이 치솟는다.
 발전기설립굴착공사에 떨쳐나선 희천시대대와 3대대를 비롯한 여러 대대의 전투원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의 승걸로 강추위를 밀어내며 돌격전의 앞장

에서 혁신의 불꽃을 날린다. 《투루, 투루, 투루, 투루...》 기관총의 어부전 연발사격소리 리가 리승호, 정경제동무들이 착암공들처럼 세게 들어잡고 들어붙는 암반을 향해 세찬 공격을 들이친다. 다른쪽에서도 류학성, 김경남동무들이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암반에 발파구멍을 내고있다. 발파공들이 능숙한 솜씨로 구멍마다 짚싸게 장약한다.

잠시후 《팡, 파-팡, 풍풍...》하는 힘찬 발파소리가 온 공사장을 울려퍼뜨린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자강도려단 돌격대원들의 강철한 청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불꽃가나마냥 끓어오르는 희천 8호발전소건설장은 밤을 모른다. 자랑찬 창조와 빛나는 위훈으로 충만되어 낮에도 밤에도 힘차게 약동한다.

이것이 수행하려는 결정적인 대책이 서야 한다. 돌격대원들의 양양된 정신력에 기계회운반수단들이 안받침된다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희천 1호발전소건설에서도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려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마주앉아 첫달전투작전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에 앞서 광차운반반로를 최대로 늘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이들은 전동기, 감속기를 자체로 해결하여 광차운반반로를 본래있던 별릴 작전을 세우고 도와의 령계를 강화하고 밤길도 여러곳을 오가며 설비마련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벌려나갔다.
 각 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헌신성이며 마련되는 즉시 언방을 깨고 로반을 정리하며 배후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가 붙이 번째 나게 다그치고 려단의 수리기에서 광차운반반로가 힘있게 지원하여 인제굴착공사장에 2개의 운반선로가 더 늘어나 가동하게 되



콘크리트기에서 쓰고도 남을만큼 곳곳에 산더미처럼 골재를 쌓아놓고있는 여러 대대들도 차례로 돌고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올해안으로 방대한 량에 달하는 수력구조물건설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이들의 결심과 각오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푹푹히 느낀수 있었다.
 그렇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는 법이다.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색을 지니고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건설투쟁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는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올해의 발전소건설에서 반드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공사장을 떠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감동일군들과 함께 건설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명백한 사회주의적 성과를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루빨리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 온화지도국,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은하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킬 일념으로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에도 도안의 각 시, 군책임일군들과 함께 자강도려단이 맡은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 돌격대원들을 로력적위훈으로 고무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교양을 받들고 원수님의 웅대한 대사업에 앞장서서 빛나는 실연하는 데 앞장설 일념으로 건설장으로 달려온 이들은 공사장과 속도를 돌아보면서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려왔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제기하여 다그쳐 끝내는 데서 위대한 장군님의 신군혁명 령도자육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자강도가 앞장설것을 호소하면서 올해공사과제수행에 대한 절연된 문제들에 대한 협의에도 절연된 그 대책문제들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또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많은 량의 각종 지원물자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면서 전투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 제2의 희천정신을 창조하도록 적극 고무해주었다.

평화와 통일을 웨방하는 합동군사연습

지금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흥이 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고있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혈육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안락까지 모대기던 북과 남의 흥이 가교, 친척들이 서로 만나 눈물을 흘리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통일의 날을 부르고있는것은 온 겨레에게 북남관계개선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새겨주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야 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남관계개선의 길에는 의외히 장애가 가로놓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려놓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미국은 우리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부터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위협을 증진하는 가교로써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 전쟁연습을 저들이 주도하면서 수많은 병력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전장장비들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남조선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해치기 위한 대외적외교(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될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물론 세계의 수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위협을 증진하는 가교로써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라고 단호히 경고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 전쟁연습을 저들이 주도하면서 수많은 병력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전장장비들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증지를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내외여론의 목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남조선에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대조선침략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고 꾀하고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전쟁불장난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그 무슨 《연례적》인것이며 《방어에 중점을 둔 훈련》이라고 광고하면서 그의 도발적성격과 위협성을 가리워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이미 그 침략적정체가 날마다 드러난 전형적인 북침핵전쟁공격연습이다. 남조선 각계가 이 전쟁연습에 대해 《북의 심장부를 겨냥한 선제적인 공격연습》이라고 일치하게 규탄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강행되어온 각종 전쟁불장난소동들은 그 위협성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위기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어왔다. 이번에도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도 다름없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을 포함한 수습인명에 달하는 방대한 병력과 첨단전장장비들이 투입되는 속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이 공격연습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해치게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미군부의 고위관제자가 도발적인 북침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9》의 수정과 보충완성에 대하여 떠벌린

사실은 이 불장난소동의 기본목적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불바다속에 몰아넣기 위한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도 그것을 《방어훈련》이라고 부르는것이야말로 눈감고 이용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북침핵전쟁을 기어코 도발하려는 저들의 호전적충성을 감출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면서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다. 이로부터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는것을 반대하기 위한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행강한 미국무장관도 남조선당국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의 성의와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인 동시에 남조선당국을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약한 압력이다. 또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악의에 찬 도전이다.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북침합동군사연습의 불장난으로 나가는것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해나서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끝없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는 이 엄중한 사태앞에서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북남대결과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다.

조선된 현실은 북남관계문제,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이 얼마나 정당한 하는것을 옹변으로 실증해주시기 바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남관계개선은 전체 조선민족의 강렬한 지향이며 공동의 투쟁목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대적투쟁에 역행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내외호전적책의 책동을 절대로 목과하지 말아야 하며 단결의 힘으로 저지파란시켜야 할것이다.

리성호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의지 표명

이란인유상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적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이라크가 이란을 무리하게 침범했다고 하면서 이란은 결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라크가 이란을 침범하는 경우 이란무장력은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미국 의 반구 바책 동 단죄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최로 미국의 반구바책동을 단죄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단체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자 연 고 회

— 오스트랄리아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산불로 10일현재 약 4만ac(에이커)의 산불이 불타버리고 10여명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12일현재 3시간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

전쟁연습의 증지를 강력히 요구

남조선의 《자주민주》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증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단체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을 침공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북의 변화유도》를 운운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가고있는것을 북을 대외의 상대가 아니라 대외와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있기때문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형

제결을 위한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평화를 위한 협정체결을 요구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흥이진 가족, 친척상봉과 전쟁연습의 중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의 봄을 맞이하자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북남사이의 흥이진 가족, 친척상봉의 성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실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미국이 핵전략공격 《B-52》를 서해공해에 출격시켜 혼란을 감행한데 이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

합리화될수 없는 미국의 도발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민주》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도발적행위를 일삼는 미국을 단죄하는 논평을 게재하였다.

논평은 판문점에서 북과 남사이에서 벌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있는 시각에 미국이 《북의 변화유도》를 운운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 사실에 대하여 까뻐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이렇게 썼다.

《미국 역시 핵전략공격기동원혼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충분히 알고있다. ...파란이 커지자 《B-52》핵전략공격기동대가 소속된 태평양지역 미공군사령부는 10년이상 지속적

로 태평양지역에 전략공격기동대가 투입이 그 어떤 구실과 명분도 없이 합리화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도 《B-52》핵전략공격기동대를 조선반도상공에 투입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행한 미국의 속심에 대하여 까뻐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이렇게 썼다.

《미국 역시 핵전략공격기동원혼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충분히 알고있다. ...파란이 커지자 《B-52》핵전략공격기동대가 소속된 태평양지역 미공군사령부는 10년이상 지속적

《조선식사회주의병원을 찾아서》

중국어에서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소개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우리 나라의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소개하였다.

6일 신화통신은 《조선식사회주의병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기자의 방문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은 평양산원과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등과 함께 조선인민의 병치료를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체들이다.

병원은 2013년 10월 개원되었으며 류경구강병원은최고평도자에서 병원들의 이름을 친히 명명해주었다. 연건총면적이 3만 2 800㎡

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옥류아동병원은 최신식의료설비를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휴식장 등으로 꾸러진 종합적인 아동의료봉사기체이다.

병원에서는 각지에서 온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로부터 소년에 이르는 모든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준다고 한다.

병원은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맞게 꾸러져있다. 조선의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환자들 입원할 때 가족들이 따로 간호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놓고 병치료를 하면서 휴양을 할수 있다. 또한 병원에는 고실들이 특별히 꾸러져있으며 오랜 기간 입원해있는 어린이들이 학습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교원들도 있었다. 이밖에 더 편리한것을 위한 첨단설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 저 조선 각지의 병원들에 기술적지원을 제공해주고있다.

신문은 또한 유용한 의사들과 최신식의료설비들로 꾸러진 류경구강병원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병원이 개원된 후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소개하였다. 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발지도를 로인들의 틀이에 이르러까지 모든 검사와 치료가 무료라고도 강조하였다.

동북보도당도 7일 우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의교부 부부장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류진진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의교부대표단이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외무성을 의례방문하고 외무성과 해당 기관 일군들을 만나 회담과 담화를 진행하였다.

회담과 담화에서는 조중판교와 지역경제, 6자회담개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공동의 인식을 이룩하였다.

쌍방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올해 두 나라사이의 교류급팽창을 강화하고 조중의교관계를 65축을 뜻깊게 기념할데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새해에 들어와 조선측이 중대조치를 통하여 경제안정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미국과 남조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우리측의 립장이 강조되었다.

조중쌍방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가

영국 정당 기관지 글 게재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기관지 《라인 오브 마쉬》 2월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중대제안을 보냈것은 북과 남사이의 판계를 개선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조선에 있는것이 여론을 옹호하면서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조선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

에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국방위원회는 또한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종계 인민단체가 수십년간 조선인민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는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낼것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었다.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은 조선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한다.

만지않아 새해는 누가 조선반도에 평화를 원하고 누가 원치 않는가를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행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북남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방도들을 내놓고있다. 조선반도의 분열을 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만이 반공공작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조선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조선은 하나다!》 【조선중앙통신】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의지 표명

이란인유상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적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이라크가 이란을 무리하게 침범했다고 하면서 이란은 결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라크가 이란을 침범하는 경우 이란무장력은 임의의 장소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미국 의 반구 바책 동 단죄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최로 미국의 반구바책동을 단죄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단체성원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자 연 고 회

— 오스트랄리아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산불로 10일현재 약 4만ac(에이커)의 산불이 불타버리고 10여명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12일현재 3시간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

폭풍피해가 계속되고있다

메릴랜드,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등지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폭풍이 휩쓸어 16명이 목숨을 잃고 도로들이 얼음으로 뒤덮여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뉴욕에서는 지하철도 운행이 마비되었으며 대부분 지역들에서 정전사태가 지속되어 정부기관들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어 령객들이 오도기도 못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분출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분출

분 렬 을 꾀 하 는 고 약 한 웨 방 군

목숨으로 신념을 지킨 과학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것은 지금에 와서 누구에게나 명백한 과학적 진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되기까지는 순환하지 않았다. 이 진리를 지켜 목숨까지 바친 사람도 있다.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학자 조르다노 브루노이다.

브루노는 중세기적암흑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인 1548년 이탈리아의 남부에서 태어났다.

14살때에 수도원에 들어가 그는 24살에 신부가 되었다. 수도원에서 그는 철학과 수학, 리포학, 천문학을 열심히 탐구하였으며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다는 학설인 지

회에 체포되었다. 회에서는 브루노의 과학적 신념을 꺾기 위해 여러해동안이나 재판을 벌여놓고 가혹한 고문을 들이댔지만 허사였다. 최후의 종교재판은 브루노에게 화형을 언도하였다.

1600년 수많은 로마사람들이 모여든 한 광장에서 화형이 진행되었다. 불에 타죽는 마지막순간까지 브루노는 믿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고 한다. 생명을 바치며 과학적신념을 지킨 그의 모습은 역사에 깊이 새겨졌다.

오늘로부터 400년의 세월이 흐른 2000년 로마 카톨릭교회는 조르다노 브루노에 대한 사형집행을 대해 사죄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대로 국내시장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미국산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각종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판세전쟁은 그 어느것이나 다 판세공간을 이용하며 더 많은 리움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판세공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판세전쟁은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더욱더 위기에 빠뜨리고있으며 그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이 스페인과의 그 무슨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그들은 유엔에서 스페인과의 문제를 논의하는 걸까지 채택하려 하고있다. 해를 넘기며 미국이 집요하게 걸고드는 스페인과의 인권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이 아닐까?

몇해전까지만 해도 스페인가는 심각한 종족간 분쟁에 시달려왔다. 서방의 식민주의자들이 실시해온 민족주의정책의 산물이었다.

스페인가는 주민구성에서 볼 때 불균형을 띠는 상황속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지난해 스페인가에 침입한 서방식민주의자들은 현지주민들이 단결하여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이끈것을 막기 위해 소수민족을 우대하면서 다수민족을 억누르는 분열통치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소수민족인 타리족에 정치, 문화,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우대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식민주의와 타리족이 서로 반복질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1948년 스페인카탈루냐에도 의연히 남아 나라의 발전에 어두운 그늘을 던졌다.

1983년 7월 타리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타리족해방방위조직이 정부군부서 1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발단으로 타리족과 식민주의자들은 치열한 투쟁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왔다. 내전이 시작되어

13년동안에만도 5만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피난민수는 수십만명에 달하였다. 나라의 사회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물질적파괴는 막대하였다. 대결과 분쟁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해 스페인카탈루냐는 오래동안 인내성있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2009년 5월 내전이 종식되었다. 그후 정부는 민족화해정책을 실시하여 타리족정체력과 대화를 추진시키려는 한편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내전과정에 정부군에 체포되었던 미국의 타리족사관들이 사회복귀훈련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으며 데모행위가 근절되게 되었다. 내전을 종식시킨 스페인정부의 노력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는 스페인카탈루냐를 옹호하는 결의가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 모든것을 부정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스페인카탈루냐에 내전을 종결하는 과정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행위를 감행하였다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있다. 《인권재판관》이란 년례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는 스페인카탈루냐를 결코 들먹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스페인카탈루냐에 내전을 종결하는 과정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행위를 감행하였다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있다. 《인권재판관》이란 년례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는 스페인카탈루냐를 결코 들먹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스페인카탈루냐에 내전을 종결하는 과정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행위를 감행하였다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있다. 《인권재판관》이란 년례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는 스페인카탈루냐를 결코 들먹이지 않고 있다.

이러커저러커 제나메대로 평가하며 쓸데없는 비난을 쏟아붓는 속심은 다름없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 단결을 지향하는 스페인카탈루냐의 동향은 미국의 그 무슨 《부정적평가》에 대해 운운하며 그와 관련한 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뉘니 하며 부안스럽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었다. 사실 미국은 다른 대통령후보가 당선되기를 고대했었다. 그러나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속이 뒤뜰린 미국은 불완전 심기를 드러냈다. 스페인카탈루냐에서 대통령의 립언을 허용하는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자 미국의 민간공세는 한층 두세하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순상》시킨다느니 뉘니 하며 비방중상하였는가 하면 독립기구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처사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로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개개 나라의 자주적권리이다. 해당 나라가 어떤 정치적행위를 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거기에 간섭하여나서거나 지지하고 호명할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페인카탈루냐에 내정을 코를 들이밀고

리랑카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걸의를 채택한다 하며 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미국의 책동은 20여년간에 걸친 내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스페인카탈루냐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금 스페인카탈루냐와 인민은 자기 나라에 또다시 사회경제발전과 분열의 위기를 몰아오려는 미국의 책동에 강력히 맞서나가고 있다.

스페인카탈루냐는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결과 단결들을 극복하는것이 민족애에 나서는 책임이라고 인정하였다. 스페인카탈루냐의 인민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성명은 미국이 스페인카탈루냐에서 분열공작을 이룩한 진보에 대해 친척인 후이푸에 보정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스페인카탈루냐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면서 다른 그 누구의 지시를 받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카탈루냐의 도처에서 수많은 군중이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벌이고있다.

공정한 국제여론은 미국의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자재의 힘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그와 같은 술책이 갈라져나갈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스페인카탈루냐의 일부 분열세력들을 끌어모아 보고사을 작성한 다. 국제기구를 든장질하여 스페인카탈루냐에 내정을 코를 들이밀고

판세전쟁은 판세공간을 리움하여 대외시장을 확대하거나 이미 장악한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목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이 일으키는 일종의 경제전쟁이다.

판세전쟁이란 말은 한 나라가 실시한 차별관세에 상대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 두 나라의 관련된 제3국에 파급됨으로써 판세에 대한 보복사태가 격화되는것을 말한다.

판세전쟁은 시장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면서 일어나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격화해왔다. 시장경쟁을 위한 판세

전쟁은 자본주의나라와 발전도상나라에 관계없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도 판세를 저들의 리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미국이 일본상봉을 국내시장에 대대적으로 침투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일본상봉에 대한 판세를 올리고있는것은 하나의 실례이다. 미국은 일본이 판세를 더욱 낮추거나 완전히 철폐하며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완화할것을 요구하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